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New Simplicity에 대한 연구**

- 존 파우슨(John Pawson)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Simplicity in Contemporary Interior Space

- Focused on the John Pawson's works -

Author 구만재 Koo, Man-Jae / 정회원,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박사수료
이정욱 Lee, Jung-Wook / 명예회장,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change in radically changing era requires various interpretation of interior space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it. Minimalism shows simple and pure geometric structure and has been influencing to every aspect encompassing space till present. The features of minimalism in space is geometric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simple and repetitive line, restrained simple space, pure and structural simplicity. When minimalism construction is discussed, the vocabulary of simplicity has been followed incidentally and has been discussed as concept of simplicity in new viewpoint through historical f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basic features of John Pawson's ways of working and trying to define the semantics of the new simplicity concept in modern interior space. The new simplicity in John Pawson shows interactive relationship of eastern and western through basic consideration of fundamental elements such as space, light and materials. The relational simple in intermediation of the new simplicity expressed by amalgamation of eastern and western further from disparate interpretation for simplicity expressed in eastern and western is to review back the basic meaning of simplicity in minimalism. And I hope this study can offer various directions for new interior space accepting theory of the new simplicity and I think that new constructional alternative is required as physical space which can be matched with era of social, environmental chaos caused by this theory of the new simplicity.

Keywords 새로운 단순성, 상호 작용,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New Simplicity, Interaction, Minimalism, Interior Spac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 변화는 현대 실내공간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920~1930년을 대표하는 문예 사조의 하나인 미니멀리즘은 예술과 디자인, 음악 그리고 공간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미니멀리즘은 기능적이며 구조적이며, 심플하고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며 현 시점까지 공간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간에서의 미니멀적인 특성은 기하학적 형태와 선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조합, 절제된 간소한 공간, 순수한 표현 기법, 순수 구조미적 단순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동양권에서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통, 정서의 영향 때문이다.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서양이지만 동양의 공간관이 추구하는 감성과 직관, 독창성, 역사성, 지역성 등과도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많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디자인은 소박함과 단순함, 세련미로서 미니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져 독특한 형태로 남아 있다.

단순성의 개념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현대적 시점에서의 단순성에 대한 개념 및 특성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성의 형성과정을 고찰해보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단순성의 개념이 기초가 있는지를 규명해보으로써, 현대 시대에 요구되는 New Simplicity 개념의 의미 체계를 규정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ee4good@gmail.com

** 이 논문은 2012년도 가천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GCU-2 012-R292)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대적 시점에서의 New Simplicity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영국의 건축가 존 파우슨(John Pawson)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출생하였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이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동·서양을 넘나들며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을 받은 작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 파우슨의 작품 중 초기 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이후의 작품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파우슨은 수도권 작품을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그의 철학을 정립하였기 때문임을 기인한다. 따라서 연구의 주요 범위는 그의 작품 활동 중 대표적 상업 공간, 공향(Public space), 다리(Object), 종교건축 중심으로 한정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 단순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단순성 개념의 근원인 1920~1930년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단순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해보며, 동시대 공간에서의 단순성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해본다. 두 번째, 모더니즘 시대에서의 단순성과 현대적 시점에서의 New Simplicity의 관계성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세 번째, 존 파우슨의 주요 작품을 평면, 형태, 빛, 재료의 4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단순성의 관계성에 대한 발견을 통해 현대 실내공간에 있어 새로운 단순성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2. New Simplicity 개념과 실내 공간

2.1. 단순성(Simplicity)의 형성배경

단순성(Simplicity)이라는 용어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종종 언급되어 왔다. 이것은 과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수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예술 및 종교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술의 영역에서 단순성이란 작품 외부의 표면만을 가리키는 것¹⁾으로서 그 기반을 시지각(視知覺)의 심리²⁾에 두고 있다. 이러한 단순함의 질서는 시각적 종합에 기여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특징들로 표현되고 있다.

(1) 루돌프 아른하임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은 단순성을 “절대적인 면에서 한 사물이 적은 수의 구조적 형상으로 구성될 때 단순하고, 상대적인 면에서는 한 사물이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구조적 형상을 가지고 복잡한 물질을

조직할 때 단순성을 가진다.”고 하였다.³⁾ 독립적으로 소수의 구조적 특징들로 이루어질 때는 그 사물은 단순하지만 상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복합체를 구성할 때 사물은 단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성이 의미하는 것은 관찰자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현상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미형성의 한 과정으로서 단순성에 의해 형태를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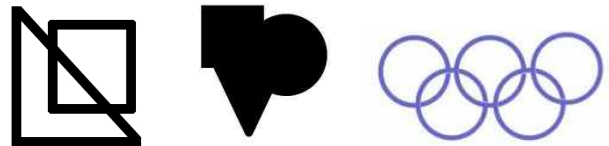
<표 1> 루돌프 아른하임의 단순성 조건

루돌프 아른하임의 단순성	
첫째	대상이 주는 시각적 자극이 단순해야 한다.
둘째	그 의미가 단순해야 한다.
셋째	지적 단순성으로 대상을 가급적 단순하게 보려하는 심리적 성향을 말한다.

아른하임은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그림의 정보가 전달되어 그림을 지각하게 될 때, 그림패턴에 대한 요소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극의 패턴에 대해서 자극 개개의 단위가 어떤 관계로 있느냐로 지각한다고 한 것이다.

(2) 게슈탈트 / 프래그난츠의 법칙

물리적 질서의 반영으로써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구조에 관한 게슈탈트(Gestalt) 법칙은 1900년대 초 독일에서 발전된 심리학적 사조로서 질서를 통하여 형태가 독립적인 힘들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나타냄을 의미한다.⁴⁾ 심리학에서 게슈탈트 주의자들은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가장 단순하고,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체계로 향하고자 하였다.



<그림 1> Law of Pragnanz

단순성의 법칙(Law of Simplicity)으로도 불리는 프래그난츠의 법칙은 게슈탈트 시지각 법칙 제 1요소로서 단순성의 원리는 시야에 들어오는 여러 자극들을 되도록이면 간단한 해석에 의해 지각하려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다. 형태심리학자들은 기하학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여러 사물들은 가장 단순하고 안정된 형상을 가지려 하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지각은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것이라 하였다.⁵⁾ 시각적인 실제 형태가 단순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정확히 지각되는 것이 형태지각의 특성이다. 또한 인식은 물체가 갖는 형태를 가능한 한 지각하기 좋은 형태로 받아드리려는 경향이 있다. 즉, 기억하기 쉽고 인상적인 형태로써 지각하려는 것이다.

1)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67

2) 전체를 지각함에 있어서 자연히 ‘최대의 단순성’의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는 원리로, 만물의 변화의 법칙도 이 원리와 다를 바 없다. 예술심리학자들은 태초에 우주가 원(형)인 이유와 물이 떨어질 때 원을 그리며 떨어지는 것, 사람의 얼굴이 좌우대칭 하는 것, 모두가 단순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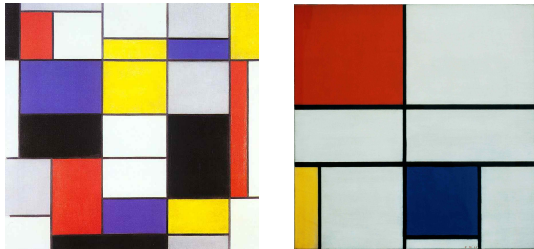
3) Rudolf. Arnheim, 앞의 책, 김춘일 역, p.64

4) Rudolf Arnheim, 예술과 엔트로피, 눈빛, 1995, pp.8~13

5) Robert L. Solso, Cognition and the visual arts, MIT Press, 1996, pp.96~97

(3) 데 스틸

데 스틸(De Stijl, 1917) 운동이라 불리는 양식의 의미를 가진 신조형주의는 정확한 공간분할과 단순성, 기본 형태, 비대칭 등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신조형주의는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 직각과 평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 형태,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 그리고 회색만을 사용한 순수추상조형을 추구하였다.



<그림 2>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반 고흐의 영향을 받은 몬드리안(P. Mondrian)은 데 스틸의 가장 두드러진 작가로 직선과 정사각형, 직사각형만을 사용한 절제된 방식으로 각 요소들의 긴장 및 균형 상태를 고조시키는 대담한 비대칭적 균형의 구성을 고안하였다. 형태의 순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조형주의 이념은 후일 회화, 조각은 물론 건축, 포스터,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4)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의 뿌리는 20세기 초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⁶⁾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전후 미술가인 바넷 뉴먼과 에드 라인하르트와 데이비드 스미스의 작품들이 보여준 명확성과 단순성에서도 크게 영향 받았다.⁷⁾ 미니멀리즘은 표현의 주관성을 배제한 미니멀 아트를 통해 원소처럼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본질적 요소, 본질 개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오브제를 그 성분 요소에까지 환원해 보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저드(Donald Judd)는 작가의 주관이나 감정을 배제한 환영의 극소화, 제작의 최소화 형태의 극단적인 단순성을 지향했던 미니멀아트의 대표적 작가이자 이론가이다. 저드는 1965년에 쓴 ‘Specific Object’에서 강력한 환원성, 단순성, 기념비적인 스타일, 새로운 재료와 공업제품을 사용한 그의 작품을 3차원적인 ‘특수한 오브

제’라고 명하였다.⁸⁾ 도널드 저드의 작품은 순수하고 단조로운 사각상자의 규칙적 배열로 나타난 감정과 은유적 표현을 제거한 단순성의 형태감이 특징이다.



<그림 3> Donald Judd

저드의 새로운 작업, 즉 특수한 삼차원적 오브제는 쉽게 건축을 연상시키며, 미니멀리즘과 연관가능한 단순성은 건축의 문화 전반에 걸쳐 추구된 전통적 가치이며, 근대 건축에 이르러 정점에 달한다.

(5) 기계미학

기계미학은 철골구조물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John Willkinson의 세븐교를 기점으로 1851년 런던 박람회에서 Joseph Paxton의 철 구조물로 19세기 유럽에 철 구조물을 유행시켰다. 이러한 기술의 향상은 20세기에 들어 건물에 기계미의 개념을 적용시키기에 이르렀다.⁹⁾



<그림 4> John Willkinson, Severn bridge, 1779



<그림 5> Joseph Paxton, The Crystal Palace, 1851

기계의 도입에 따른 ‘미의식의 전환’은 사회적, 정치적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배경으로 하므로 ‘기계미학’이라 일컬어져 왔고, 건축에도 수용되어, 현대건축에 기계의 도입을 촉발한 배경이 되었다. 건축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는 효율성, 재료에 대한 고려, 반복에 의한 대량생산 등의 ‘생산 메커니즘에서의 특성’과 단순성, 조화, 완벽성, 정확성, 유사성의 ‘외형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표 2> 단순성의 형성 과정

루돌프 아르하임	시지각적 심리	정교함과 복잡함으로부터 해방된 시각전달 테크닉
게슈탈트 / 프래그먼츠	규칙성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여러 사물들은 가장 단순하고 안정된 형상
데 스틸	추상성	직선과 사각형만을 사용한 절제된 방식
미니멀리즘	물질적 환원성	오브제를 성분 요소에까지 환원해보려는 경향
기계미학	경제적	기계도입에 따른 재료의 최소화

6) 구성주의 (Constructivism)는 1917년 ‘10월 혁명’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생겨난 반예술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러시아 아방가르드로 총칭된 운동의 일부이다. 기존예술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에의 대응을 예술에서 찾았다. ‘기계 시대’에 걸맞게 예술과 디자인에서 급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용인했다.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은 기존의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구성주의에 의해서 나타난 형태는 대개 기하학적이고 단순했다.

7) 로버트 앳킨스, 알기 쉬운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선 역, 시공사, 1994, p.94

8)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 Yearbook 8, 1965, rep

9) Davies Colin, High Tech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8, p.6

2.2. 공간에서의 단순성 개념

(1) 아돌프 로스(Adolf Loos)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분리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단순한 기하학적 선과 형태를 강조하면서 장식을 보다 절제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유럽 근대 건축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비엔나 건축가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는 무엇이 비엔나 사회를 타락하게 하였는지에 주목한, 건축을 뛰어넘는 철학자였으며 모더니티의 새로움 아래 평범함을 숨기려는 지나친 장식의 옹호를 비판하였다. 건축은 공간의 울타리가 가능한 효과적으로, 기능적인 방법으로 편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예술과 건축 사이의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였으며 건축의 책임을 강조하였다.¹⁰⁾ 아돌프 로스는 1908년에 모든 장식예술이 비생산적인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모든 장식예술을 거부하는 ‘장식과 죄악(Ornament und Verbrechen)’이라는 논문¹¹⁾을 발간하였다. 장식의 제거는 문명의 진보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 주장했다. 이것은 장식이 나쁜 것이고 죄악스러운 것이므로 우리시대에 사라져야 한다는 최초의 명확한 주장이었다.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는 장식은 감각적이고 원초적으로 단순한 사람들, 촌민들에게 적합하다며 불필요한 요소¹²⁾로 규정하며 로스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는 “정신(Esprit)은 항상 단순한 해결책에 도달하려 한다. 단순성은 정신적 작업의 도달점이다.”¹³⁾라고 언급하는 등 1920년대 초 그의 많은 글을 통해 단순성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거론되어졌다.

(2)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비평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종종 독일어로 언급하곤 했던 “beinache Nichts”(거의 없는)와 함께 Mies에 의해 사용되어진 소수의 슬로건 중 하나인 영어로 “Less is More”라는 문구를 지어낸 건축가이다. ‘Less is More’는 조화를 나타내며,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Less없는 More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More없는 Less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미스에게 있어서 단순성은 ‘Almost nothing’에서 발전된 ‘Less is More’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건축의 본질로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미스의

10) Anneke Hackman, Rules to Build By: The Path taken to understanding Adolf Loos, 1998

11) 로스는 장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범죄자들, 원시적인 족속들에게서 환호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적 진보는 장식을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떼어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주어진 성질을 위해 표현되는 재료만을 유일한 장식요소로서 허용했을 뿐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나 변형도 용납하지 않았다. 모더니즘 이후의 미학, 피터플러, 열화당, 1990

12)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1923, p.113

13) Le Corbusier, L'almanach de l'architecture, 1926, pp.14~15

‘유니버설 스페이스’(Universal Space)¹⁴⁾라는 개념 또한 건축적 형태가 변화를 겪지 않고, 여러 기능을 수용하는 본질적 공간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미스는 내재적인 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 가능성에서 찾았으며, 지속성은 융통성과 다양성을 지적한다. 그는 장식이 적을수록 공간이 풍부하다는 것, 내재적인 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함에 있어 재료의 발전을 통해 물질성, 실재성, 명료성으로 건축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표 3> 공간에서의 단순성

아돌프 로스	윤리성	모든 장식 예술이 비생산적인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장식의 제거는 문명의 진보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 주장
미스 반 데어 로에	보편성	‘Less is More’ 건축적 형태가 변화를 겪지 않고, 여러 기능을 수용하는 본질적 공간을 찾고자 함, 내재적인 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

2.3. New Simplicity의 개념

기존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단순성의 개념은 현대에 들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흥경·김봉재(2003)¹⁵⁾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로부터 시작된 예술작업에 있어서 막스 빌(Max Bill)의 영향은 단순성에서 진화된 새로운 단순성 즉, New Simplicity 개념의 확산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막스 빌의 영향에 의한 유럽, 남미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New Simplicity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대에서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의 것들로 구성되는 단순성의 미학이 오히려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태적, 기능적 으로서의 단순함이 아닌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적 사상과 감정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New Simplicity라 할 수 있다.

(1) 기하학적 추상과 반복성

서양 건축의 흐름 속에 1970년대 이후 미니멀적 단순성의 경향은 20세기 초반의 기술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기능적 단순성과 1960년대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영향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또한, 기술과 관련한 형태적 최소화의 경향 및 본질추구의 환원을 공통분모로 가지며 단순성을 가진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향,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등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의 시적인 표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이론의 비평가인 케네스 프렘턴(Kenneth Frampton)은 막스 빌(Max Bill)의 예술적 이론과 작업이 현재의 건축가들에게 상당히

14) 이호정, 유동하는 공간: 비 대상의 세계, Concept, 2003.12, pp.75~77

15) 신흥경·김봉재, 단순성의 개념으로 본 실내공간 표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많은 공감대를 가지게 했다. 바로 새로운 단순성을 통한 독일어권 스위스 건축의 확립이다.¹⁶⁾ 보편적인 형태로 환원(還元)되는 것, 의식적인 단순성에 대한 탐구는 스위스 및 독일 건축의 특성들로 보여 진다. 이들 건축에서는 헤르조그와 드메룬(Herzog & de Meuron), 디너와 디너(Diener & Diener), 기곤과 가이어(Gigon & Guyer), 부르크할트와 수미(Burkhardt & Sumi), 페터 Zumthor와 같은 건축가들 역시 단순성, 스케일의 상호작용, 큐빅 형태와 재료의 엄격하고 반복적인 사용에 기반을 둔 New Simplicity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 건축가들의 작품은 재료의 정확하고, 절제되고,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전체적으로 기하학적인 추상을 탐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⁷⁾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는 중요한 형태적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바우하우스에서 훈련을 받았던 막스 빌을 내 세운다.

막스 빌과 동시대인들의 건축 작품들 간의 직접비교는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단순화는 단순히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이해가능하고 열린 것에 대한 탐구이다.¹⁸⁾ 막스 빌과 'New Simplicity'는 그 대안적인 예술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첫째, 구체예술과의 일정한 관계, 둘째, 추상적 형태의 문제이다.



<그림 6> Pavillion, 1969



<그림 7> Pavillion, 1983

바우하우스와 르 꼬르뷔지에 사이에 막스 빌의 그래픽과 건축디자인은 훌륭한 형태의 디자인을 열망하는 최대의 기하학적 활력에 기반을 둔다. 막스 빌은 수학적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이것들을 순수한 지적 구축물로 인지하게 하였다. 수학적 사고방법이란 수와 열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형태적 조형의 가장 간단한 귀결이다.¹⁹⁾ 막스 빌은 구조적 단순화를 통해 공간과 평면의 한계를 넘나들었다. 미적으로 확장가능한 구조를 인식적 질서 원리의 개념 하에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을 정주할 수 있는 공간적 조각의미로서 파빌리온 구조를 통해 제시하였다.<그림 6, 7>

16) Lars Müller, Minimal Tradition, the 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1996, p.133

17) 신흥경·김봉재, 단순성의 개념으로 본 실내공간 표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p.20

18) Lars Müller, Minimal Tradition, the 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1996, p.148

19) Max Bill, max bill. skulpturen gemalde graphik, cantz, 1987, p.29

(2) 물질성과 본질적 특성

일본의 건축은 구름, 안개, 환영, 꿈, 바람 등과 같은 최소의 존재에 관심을 두었고 그것을 건축에 표현하였다. 영국의 건축가 피터 쿡이 최초로 “가장 중요한 건축 정보의 대부분은 어디서 얻는가, 그것은 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일본의 이와 같은 선도는 건축행위의 역동성에 의해 증거 된다. 단게 켄조(Tange Kenzo), 기소 쿠로카와(Kisho Kurokawa),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 안도 타다오(Ando Tadao), 마키 후미히코(Maki Fumihiko), 이토 토요(Ito Toyo) 등의 일본 건축가들은 외국에 열리는 건축가의 전시회에 초대받고 작품을 위탁받아 그 위상을 높여갔다. 그들의 평면이나 단면을 살펴보면 순전한 단순성을 넘어 정갈하다는 느낌마저 자아내는데, 이러한 단순성은 복잡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내재적인 힘이다. 이들은 비정형과 하이브리드가 난무하는 건축세계에서 빛과 대지에 충실하는 근본적인 건축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진면목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며, 이것은 근대의 단순성과는 구분되는 New Simplicity의 개념이다.

New Simplicity 개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서 구라마타 시로(Kuramata Shiro)는 부친의 동경 이화학 연구소가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것이어서 모더니즘의 근대개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으며, 남들보다 빨리 신소재에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의 바우하우스 ‘구와사와 디자인 전문학교(Kuwasawa Design Institute)’ 리빙 디자인과에 입학하여 동·서양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일본적인 소재에 의지함 없이 소재의 본질과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지속시켜 나가는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을 비롯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흥미, 맴피스(Memphis)의 전시 참가 및 에ttore 소사스(Ettore Sottsass)와의 교류 등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한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에 대한 사고는 어떠한 양식에도 얽매임 없이 동양의 고유한 미의식과 독자적인 체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언어와 작품으로 완성되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²⁰⁾를 받게 되어, 디자인 활동에 있어 새로운 면을 더하였다. 그는 소멸, 형태의 가능성,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안도 타다오는 스케일에 대한 극도의 치밀한 분석에 의해 반복된 삭제를 통해 극한까지 추구되는 미학을 제시하는 미니멀리즘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함에 대한 간결의 미의식과 소재가 가진 구체화의 의미를 소거한 추상의 미학에 기인한다. 이처럼 일본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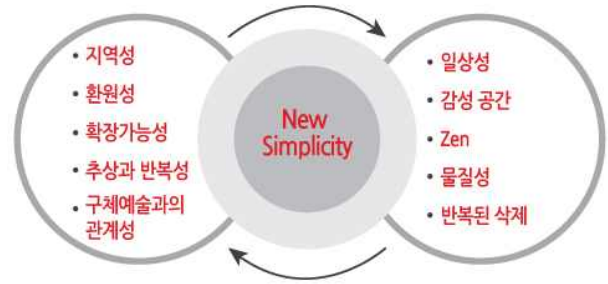
20) Shigeru Uchida et al., Rikuyo-Sha, Tokyo, 1995, p.21



<그림 8> Lighting Shelves, 1969



<그림 9> Club Judd, 1969



<그림 10> 현대적 New Simplicity의 개념

통식 공간사상은 최소한의 요소에 의한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을 찾는 구라마다 시로의 디자인 테마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이 보다 간결하고 가볍게 표현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구라마다 시로를 비롯한 일본 건축가들의 특징은 형태적 단순성, 개념의 명료성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융합되어 서로를 단단히 지탱함으로 인해 하나의 형태를 넘어 이질적인 공간을 만든다.

(3) 현대적 New Simplicity의 개념

‘런던 미니멀(London Minimal)’을 대표하는 존 파우슨(John Pawson)은 저서 Minimum(1996)을 통해 미니멀리즘의 가치를 미적 범주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 ‘최소’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삶의 정신적 가치도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건축학적 요소라 부를 수 있는 공간, 빛, 그리고 재료와 이들과 사람 간의 기초적인 관계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²¹⁾ 그가 다루는 것은 건축의 근본적인 요소들이며, 시각적이고 재질적인 질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아함의 느낌을 보여준다.

존 파우슨은 영국에서 자라왔으나 일본에서의 4년간의 경험이 미니멀한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적인 미의 특징 중 단순미를 잘 이해하고, 구라마다 시로의 디자인적 특성에 적절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파우슨의 New Simplicity는 동양과 서양의 전통인 연속적 단순함의 표현에까지 뿌리를 둔다. 그는 어떠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매너리즘을 개발하기 보다는 공간, 빛, 재료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에 초점을 둔다. 또한 그에게 있어 진정한 편안함은 눈, 생각 그리고 물리적인 몸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무엇도 방해할 하지 않는 명료함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파우슨은 구라마다 시로의 단순하고 소박하며 소수의 물체들만 포함하는 건축 방식을 따랐다. 그가 일본에 머무는 것을 좋아한 이유는 일본 고유의 극단적인 관심과 계획적이지 않은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이를 한계까지 끌고 가는 극단주의는 표면적으로 비-영국적으로 파우슨 작업에 있어 동·서양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보여 준다.

서양과 동양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New Simplicity 고찰 결과, 서양에서의 지역성의 시적인 표현, 독일어권 스위스 건축의 태동으로 인한 보편적인 형태로의 환원, 동양 Zen(禪) 사상 중심의 정서적 공간 표현, 재료의 물질성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대에 이르러 작가 각각의 개인적인 특색이 아닌 보다 확장되어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융합된 New Simplicity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존 파우슨(John Pawson) 작품에서의 New Simplicity 표현 특성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New Simplicity의 개념이 존 파우슨의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본다. 파우슨의 작품 중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되고, 작품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수도원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작품은 켈빈 클라인(Calvin Klein) 매장,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 라운지, 노비드부르(Novy dvur) 시토 수도회 수도원, 새클러 크로스링 브릿지(Sackler crossing bridge)를 중심으로 평면, 형태, 빛, 재료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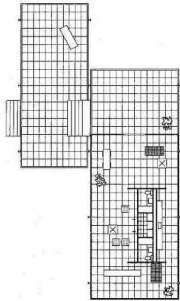
3.1. 평면 구성의 단순성

건축가에게는 건물자체의 예술성이 주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스 반 데어 로에는 표현이 절제된 건축형을 창조해냄으로써 보다 정신적이고 명상적인 차원의 공간을 만들었다. 미스는 건축적 조형성을 거의 없애고 개방형 평면으로 된 건축공간을 실현시켰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최대한 두고 소수의 아름다운 사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프레임만을 남겨 놓고 그 사이에 전면 투명 유리를 끼우는 방식으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스적인 less 건축형을 발전시켰다. 이렇듯 미스의 표현인 ‘Less is More’는 미니멀리즘의 정신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최소수단과 최대효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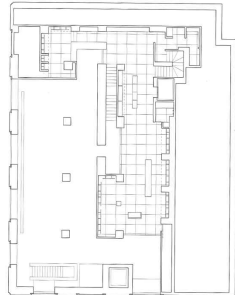
파우슨은 건축에 있어 평면의 연결과 조명의 중요성, 실내공간의 형태에서 3차원적인 공간을 제거해서 만든

21) John Pawson, The Voice of Matter(2006-2011), El Croquis No.158, 2011, p.13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켈빈 클라인 매장은 단순한 형태미로 미니멀 건축의 유명한 사례이다. 켈빈 클라인 매장의 평면 구성을 보면 구조, 재료 등이 덧입혀져 건축적 표현들은 삭제되어 최소화되고 설비 등의 기계적 흔적들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



<그림 11>
Farnsworth house,
1946-1950



<그림 12> Calvin Klein,
1995

3.2. 형태적 단순성의 특성

실내 공간은 건물, 공간이 가지는 실용성 때문에 미술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더 많은 매개물을 요구하며, 이때 기하학적 형태는 단순성을 표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그림 13> Donald Judd,
1984



<그림 14> Cathay Pacific,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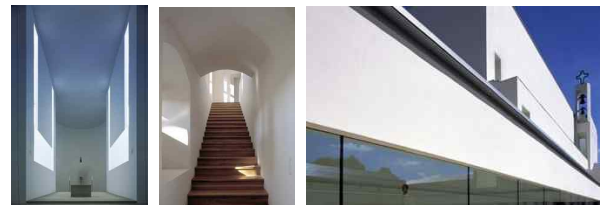
도널드 저드는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차용하여 가장 단순하고 절제된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실내공간의 경우 불필요한 장식이나 꾸밈을 과감히 생략하고 그 안에 가구나 생활용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설치하였다. 그는 단순함과 명료함이 예술의 기본으로 삼았는데, 그의 가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원형, 육면체, 원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단순하고, 명확함을 전달해준다.

파우슨이 디자인한 홍콩국제공항 캐세이패시픽항공의 고객라운지는 공항의 까다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함의 본질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사각형의 형태와 빛의 조화로 어우러진 가구는 현대적인 고전미로서 단순하고 명확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는 장시간 비행이나 비행 전 대기시간으로 발생하는 피곤함을 없애고, 비즈니스 출장고객을 위해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3.3. 현상학적 빛의 아름다움

자연 속의 모든 구성 요소와 산, 시냇물, 공기 그리고 우리 자신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빛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이와 같은 모든 물질들은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며 이러한 그림자는 빛에 귀속되며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된다. 건축에 있어 공간을 만드는 목적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공간에 존재하는 빛의 성격은 공간의 건축적 질과 성격을 결정한다. 건축 공간에서의 빛의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성격과 표정을 좌우하게 된다.²²⁾ 이처럼 창을 통해 복잡한 공간 구조로 빛을 투사하고, 광선은 공간을 채워서 반사에 의해 빛의 흐름을 제어하여 공간의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해준다.

구라마타 시로는 빛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였는데 빛이 없는 공간은 어떠한 생명력도 불어넣지 못하고, 빛이 실내공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구라마타 시로의 작업 방식은 재료의 사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인공조명 또는 자연적인 빛이 함께 작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그림 15> Novy Dvur 시토 수도회 수도원

존 파우슨은 미니멀리즘에 대하여 한 가지의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간-비율, 표면, 빛의 퍼짐-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여겨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포괄적이며 흠이 없고, 형태보다는 공간을, 물체보다는 장소에 관한 것이라 하였다. 시토 수도회의 수도승들을 위해 파우슨이 재설계한 체코 노비 드부르 수도원은 극도로 절제된 물리적 요소들 속에서 무한한 영혼적 풍요와 사색을 고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에 충분하다.

3.4. 소재의 함축적 표현

건축에서 논의되는 재료, 물성과 상관된 물질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존재적 개념의 실체이다. 이처럼 건축에 있어 물질은

22) 인간 심리학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 박사는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커다란 창이 나 있는 방과 창이 없이 천장에 조명등만이 달려 있는 방에 각각의 피험자를 있게 하고 피험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인물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전자는 사진의 모습이 매우 험기 왕성하며 행복해 보인다고 대답을 했고 후자는 매우 지쳐있고 쇠약해보인다고 답을 하는 결과를 얻었다. Victor Papanek, The green imperative-ecology and ethics in design and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Limited, London, England, 1995, pp.94~95

개념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면서 본질적인 제일의 요소로서 기술의 발달과 수많은 신소재의 등장으로 물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료가 가지는 물성을 어떻게 인식하여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특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6> How High the Moon, 1986



<그림 17> Sackler Crossing Bridge, 2008

구라마타 시로는 소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는데 그의 작품에서는 오브제와 콘셉트의 상반성 사이의 대조를 통해 오브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의자의 솔리드한 전통적인 일치를 통해서 금속적인 메쉬의 무형의 투명성을 대비시키고, 표면의 재료성을 통해 텅 빈 볼륨의 불일치를 대비시키며, 물질 특유의 가치를 통해 반사하는 빛의 순간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퀼팅(Quilting)의 부드러움과 스틸의 단단함을 대비시키고, 이상주의적인 유토피아와 시각적인 물질을 줄이면서 이미지의 미묘한 아이러니를 대비시켰다. 또한 익스팬디드 스틸 메쉬의 사용으로 공간감을 상실하여 어지럽기까지 한 공간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존 파우슨은 인위적 오브제의 완성에 있어 ‘완벽(Perfection)’의 단계란 ‘반복된 삭제(Subtraction)’를 거듭하여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한 경지에 이를 때라 주장한다.²³⁾ 불필요한 요소들을 반복, 제거하여 도달하는 파우슨의 ‘완벽한’ 건축은 New Simplicity를 통한 안도 타다오의 본질적 건축과 구라마타 시로의 독자적 실험정신의 영향이 크다.

파우슨은 구라마타의 작업을 관찰하며, 재료와 기술을 통한 가장 대담한 실험을 하면서도 단순함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건축물이란 건축물 안팎을 점거하는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매체라고 본다. 목재, 광택 콘크리트,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파우슨이 즐겨 활용하는 건축 자재도 단순하고 견고한 소재가 주를 이룬다. 일체

의 장식성이나 군더더기도 허락하지 않는 그의 건축세계를 가리켜 흔히 단순함을 넘은 스파르타적인 엄격함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정작 파우슨은 자신의 건축은 모든 사람에게 공간을 비워주어 더욱 적합하고 편안한 공간을 모색한 결과이다.

3.5. 소결

앞서 분석해본 바와 같이 존 파우슨의 실내공간에서 표현된 New Simplicity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존 파우슨 작품 종합분석

작품명	Calvin Klein	Cathay pacific lounge	Novy dvur	Sackler crossing bridge
작품 이미지				
평면	반복된 삭제	확장 가능성	반복된 삭제	Zen
형태	확장 가능성	환원성	감성 공간	반복된 삭제
빛	-	일상성	Zen	환원성
재료	구체예술과의 관계성	추상과 반복	지역성	물질성
종합	반복된 삭제를 통해 빈 공간을 최 대한 활용	보편적인 형태로 환원	동양의 선(禪)사상 중심의 공간에 대한 정서적 표현	소재의 함축적 표현으로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을 물리적으로 표현

첫째, 평면 구성의 단순성으로 반복된 삭제를 통해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단순성은 순전한 단순성을 넘어 정갈하다는 느낌마저 자아내며, 복잡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내재적인 힘이다.

둘째, 형태적 단순성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인 형태로의 환원이다. 기하학적 특성은 단순성을 표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단순한 형태나 수학적 체계에 따른 배열 방식은 작품의 물리적 특성이 내용이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암시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셋째, 현상학적 빛의 아름다움으로, 동양의 선(禪)사상 중심의 공간에 대한 정서적 표현이다. 공간에 존재하는 빛의 성격은 공간의 건축적 질과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인공조명 또는 자연적인 빛이 함께 어우러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미니멀리즘에 대하여 한 가지의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간-비율, 표면, 빛의 퍼짐-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넷째, 소재의 함축적 표현으로서 파우슨은 구라마타 시로의 작업을 통해 재료와 기술을 통한 가장 대담한 실험을 하면서도 단순함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건축물이란 건축물 안팎을 점거하는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을 물리적으로 표현

23) 한편 파우슨이 설명하는 아름다움은 1485년의 팔라디오(Palladio)가 규정하는 아름다움, 즉 각각의 부분들이 ‘더 이상 더할 수도, 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rien ne puisse etreajouté, retranché ou changé: in Leon Battista Alberti, L’Artd’édifier(De re aedificatoira), 1485)’ 전체의 상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구성주의(composition)가 아름다움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미학이다. 한편 미니멀 건축가로 자칭하는 Pawson 스스로가 추구하는 이상이 미니멀 아트가 적대시하던 구성주의의 이상과 일치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현하는 매체라고 보았으며, 동양의 특성인 재료의 물질성을 내포한다.

파우슨의 작품을 통해 현대 실내공간에서 New Simplicity는 주변의 다른 공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세련된 단순함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동·서양의 각각 지역적 특색보다는 하이브리드적 상호보완 관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4. 결론

단순성은 미니멀리즘 건축에 있어 가장 명확하면서 대표적인 특징이다. 미니멀리즘 건축이 논의되어질 때 단순성이라는 어휘는 항상 부수적으로 뒤따랐으며 역사적 흐름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New Simplicity 개념으로 논의되어왔다.

새로움 그 자체를 위한 혁신성, 시선집중만을 겨냥한 일시적 충격효과가 현대인들의 공간과 시각 환경을 혼동시키는 시대이다. 비워진 공간미학과 비워진 영혼주의가 만나는 존 파우슨의 작품들은 동과 서,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는 고요와 절제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의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선을 강조하는 일본 스타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파우슨의 작업 속에는 나고야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건축가로 전향한 이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일본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다채롭게 표현된다.

존 파우슨에 있어 New Simplicity란 근본적인 요소들인 공간, 빛, 소재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며,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이를 한계까지 끌고 가는 극단주의로서 동·서양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적 New Simplicity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관계 속에 생성되고 변화하며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과 서양에서 표현되는 단순성에 대한 이질적인 해석에서 더 나아가 동·서양이 융합되어 표현된 New Simplicity의 매개 사이에서의 관계적 심플은 미니멀리즘의 단순성에 있어 본질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함이다. 현대의 다원주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개성적이고 다양한 실내 공간 개념의 필요성 앞에 역사적 가치로 재조명한 New Simplicity 표현 특성은 실내 공간 분야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내포한 독창적인 틀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실내공간을 New Simplicity의 관점으로 의미체계를 규정해본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New Simplicity 이론에 의한 사회 환경 혼돈의 시대에 맞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필요하다. 향후 New Simplicity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보완해

나간다면 New Simplicity 이론을 수용하는 새로운 실내 공간에서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Anneke Hackman, Rules to Build By: The Path taken to understanding Adolf Loos, 1998
2. Davies Colin, High Tech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8
3.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 Yearbook 8, 1965
4. John Pawson, The Voice of Matter(2006-2011), El Croquis No.158, 2011
5. Lars Müller, Minimal Tradition, the 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1996
6. Le Corbusier, L'almanach de l'architecture, 1926
7.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1923
8. Max Bill, max bill. skulpturen gemalde graphik, cantz, 1987
9. Robert L. Solso, Cognition and the visual arts, MIT Press, 1996
10.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11. Rudolf Arnheim, 예술과 엔트로피, 눈빛, 1995
12. Shigeru Uchida et al., Rikuyo-Sha, Tokyo, 1995
13. Victor Papanek, The green imperative-ecology and ethics in design and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Limited, London, England, 1995
14. 로버트 앳킨스, 알기 쉬운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선 역, 시공사, 1994
15. 피터폴러, 모더니즘 이후의 미학, 열화당, 1990
16. 신흥경·김봉재, 단순성의 개념으로 본 실내공간 표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17. 이호정, 유동하는 공간: 비 대상의 세계, Concept, 2003

[논문접수 : 2012. 12. 31]
[1차 심사 : 2013. 01. 21]
[2차 심사 : 2013. 02. 02]
[게재확정 : 2013. 02. 08]